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3.489>

JCCT 2024-5-56

몽골 대학생의 시민성과 사회성이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Citizenship and Sociality on Morality of Mongolian University Students

김진*, 차남현**

Kim Jin*, Cha Nam Hyun**

요약 본 연구는 몽골대학생의 시민성, 사회성, 도덕성의 관계를 확인하고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은 2020년 3월 1일부터 30일까지 구글을 통해 몽골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연구 설계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통계 분석은 SPSS 27.0 버전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몽골시민성, 사회성, 도덕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종교였으며, 시민성과 사회성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성($\beta=.45, p<.001$)과 시민성($\beta=.39, p<.001$)이었으며, 설명력은 57.1%($F=.571, p<.001$)이었다.

주요어 : 시민성, 사회성, 도덕성, 몽골, 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the factors affecting the morality of university students in Mongolia. A cross-sectional study was used. The participants include 200 university students from 1 March 2020 to 30. A self-report question through Google survey was done. Religion was the variable that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itizenship, sociality, and morality of the participants, and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itizenship and morality in society. The factors affecting morality were sociality($\beta=.45, p<.001$) and citizenship($\beta=.39, p<.001$), and the explanatory power was 57.1%($F=.571, p<.001$).

Key words : Social behavior, Morals, Mongolia, Students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몽골은 아시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청나라, 중국, 구소련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3번의 정치적 변혁을 거쳐 평화적 민주화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로의 체제변환에 성공하였다[1]. 몽골의 이러한 변화는 몽골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는 대학생들의 시민성, 도덕성, 사회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1-3] 생각되나 이와 관련된 연구가 거의 없어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몽골의 변화를 3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경제적 변화는 자녀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열심히 공부시키고자 하는 부모들의 교육열을 높였고[2], 둘째,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 국가로의 정치적 변화는 이전보다 국민들이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고 시민적 의무와 책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예로 몽골은 의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여 민주적으로 정권교체를 이루고 있다[1] 셋째, 사회적 변화는 '네 것도 없고 내것도 없다'는 몽골 민족의 국민인식과 인간관계가[3] 긍정적으로 도덕성과 윤리적 행동으로 변화하도록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생들은 새로운 윤리적 문제와 도전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요구받는 시기이다[4]. 이러한 몽골의 변화

*정회원, 광주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제 1저자)

**정회원, 국립안동대학교 생명과학·건강복지대학 간호학과 교수(교신저자)

접수일: 2024년 3월 12일, 수정완료일: 2024년 4월 15일

게재확정일: 2024년 5월 5일

Received: March 12, 2024 / Revised: April 15, 2024

Accepted: May 5, 2024

**Corresponding Author: yeoreo@daum.net

Dept. of Nursing, Andong National Univ. Korea

는 몽골 대학생들에게 시민성, 도덕성, 사회성에 대한 요구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발전과 사회적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몽골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시민성, 도덕성, 사회성이 어떻게 정의되고 평가되는지에 대한 이해는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몽골 문화는 공동체 중심적이며 가족과 집단의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행동이 공동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개인의 책임감과 상호의존성을 강조한다[5]. 몽골의 생업이 목축이었던 만큼 성실함, 용기, 예의, 체면 등이 몽골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며, 이러한 덕목들은 개인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6]. 또한, 사회성은 몽골의 문화적 맥락에서 볼 때 타인과의 관계 및 상호 작용에서의 개방성 및 적응력, 인내심에 중점을 두고 평가된다[7]. 따라서 몽골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시민성, 도덕성, 사회성을 이해하는 것은 몽골 대학생들의 교육과 사회 참여에 있어서 중요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대학은 시민성과 도덕성을 발전시키는 인성교육의 마지막 관문이다[8]. 하지만 몽골의 대학생들이 어떻게 시민성을 이해하고 실천하는지, 교육이 어떻게 이를 지원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또한, 몽골의 대학생들이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미래의 리더 및 시민들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가 기초적인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몽골의 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을 제공하기 위해 대학생들의 시민성, 도덕성, 사회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 몽골 대학생들의 시민성, 도덕성, 사회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몽골 대학생의 시민성, 사회성, 도덕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도덕성에의 영

향요인을 알고자 한다.

- 1) 몽골 대학생의 시민성, 사회성, 도덕성의 정도를 파악한다.
- 2) 몽골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별 시민성, 사회성, 도덕성의 차이를 확인한다.
- 3) 몽골 대학생의 시민성, 사회성, 도덕성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4) 몽골 대학생의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기존에 개발된 시민성, 사회성, 도덕성 도구의 신뢰도와 준거 타당도를 평가하여 몽골 대학생의 시민성, 사회성, 도덕성의 관계를 규명하고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몽골 울란바토르에 거주하는 대학생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고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는 대상자를 표집하였다. 표본 수는 G 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α)=0.05, 회귀분석의 중간 효과크기인 0.15, 검정력($1-\beta$)은 0.95로 설정 시 최소인원이 172명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220명에게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표집 절차는 울란바토르에서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구글(Google)을 통한 자발적인 연구 참여로 표본을 추출하였고 총 200명의 대상자가 참여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Seo[9]가 개발하여 사용 중인 시민성, 사회성, 도덕성 도구를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이 도구를 몽골어로 박사학위를 받은 언어 전문가 1인이 번역하고, 몽골인 2인이 번역-역번역하여 번역의 적절성을 평가한 후 간호학 교수 2인이 도구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수준,

종교 유무, 거주형태 총 5문항이었다.

2) 시민성

시민성 도구는 Seo[9]가 대학생 수준에 맞게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인간의 존엄성(6), 민주적 기본질서와 절차(7), 사회참여 의식(4), 합리적 의사결정(7문항)으로 총 24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점수 범위는 최저 24점에서 최고 120점까지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시민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Seo[9]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88이었다.

3) 사회성

사회성은 Seo[9]가 대학생 수준에 맞게 수정한 총 20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자율성 4문항, 근면성 4문항, 사교성 4문항, 안정성 4문항, 지도성 4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범위는 최저 20점에서 최고 100점까지 총점이 높을수록 사회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Seo[9]의 연구에서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84이었다.

4) 도덕성

도덕성은 Seo[9]가 대학생 수준에 맞게 수정한 16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이타성 8문항, 사회적 책임감 8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16점에서 최고 80점까지 총점이 높을수록 시민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Seo[9]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88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0년 3월 1일부터 30일까지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구글(Google)을 이용한 설문지에 응답하게 하였다. 연구 설명문에는 연구의 목적, 연구 절차, 자료수집 과정, 비밀 보장, 연구 대상자 참여의 자율적 결정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대상자들의 연구참여 동의 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 내외 정도이며 설문조사에 협조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전화카드)을 제공하였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6.0(IBM Corp., Armonk, NY: IBM Corp., 2015)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변수별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시민성, 사회성과 도덕성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시행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A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1040191-202103-HR-002-01)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연구의 취지와 목적, 연구진행 절차를 설명하고 응답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됨을 알려주고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대학생 60명(30.0%), 여자 대학생 140명(70.0%)으로 연령은 평균 20.95세이었다. 학력은 저학년 58명(29.1%), 고학년 141명(70.4%)이었으며, 종교는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50.0%, 거주 형태는 부모님과 함께 산다는 대상자가 56.1%로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시민성, 사회성, 도덕성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시민성은 3.96 ± 0.60 점, 사회성은 3.55 ± 0.62 점, 도덕성 점수는 3.67 ± 0.30 점이었다(Table 2).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00)

Characteristics	Variables	n	%
Gender	Male	60	30.0
	Female	140	70.0
Age	Mean(SD)	20.95±1.54	
Grade	1-2	58	29.1
	3-4	141	70.4
Religion	Yes	100	50.0
	No	98	49.5
Habitation	Parent's house	111	56.1
	Dormitory	28	14.1
	Live by self	46	23.2
	Others	13	6.6

표 2. 대상자의 시민성, 사회성, 도덕성 정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Citizenship, Sociality and Morality (N=200)

Variables	Range	Mean±SD	Minimum	Maximum
Citizenship	1~5	3.96±0.60	2.04	5
Sociality	1~5	3.55±0.62	1.7	5
Morality	1~5	3.67±0.3	1.88	5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시민성, 사회성, 도덕성의 차이

몽골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별 시민성, 사회성, 도덕성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종교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몽골 대학생이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몽골 대학생보다 시민성($t=2.25$, $p<0.5$), 사회성($t=2.24$, $p<0.5$), 도덕성($t=3.25$, $p<0.01$)이 높았다(Table 3).

표 3. 일반적 특성별 대상자의 시민성, 사회성, 도덕성의 차이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Citizenship, Sociality, Morality (N=200)

Characteristics	Variables	Citizenship		Sociality		Morality	
		M±SD	F or t(p)	M±SD	F or t(p)	M±SD	F or t(p)
Gender	Male	92.88±15.04	-1.37 (.17)	70.22±12.23	-.59 (.56)	56.75±9.72	-1.80 (.07)
	Female	95.93±14.03		71.35±12.44		59.57±10.30	
Education	Low	96.26±15.25	.80 (.43)	70.63±13.70	-.18 (.86)	60.17±10.80	1.13 (.26)
	High	94.47±13.86		70.98±11.86		58.39±9.77	
Religion	Yes	97.39±13.39	2.25 (.03)	72.86±11.15	2.24 (.03)	61.05±9.22	3.25 (.001)
	No	92.82±14.99		68.95±13.28		56.44±10.66	
Habitation	Parent's house	95.80±14.71	.76 (.50)	70.76±12.64	.15 (.93)	59.22±10.29	.86 (.46)
	Dormitory	91.56±14.80		69.93±13.56		57.32±10.22	
	Live by self	94.89±12.99		71.83±11.62		57.71±10.07	
	Others	97.77±15.27		71.38±11.15		62.00±9.86	

4. 대상자의 시민성, 사회성, 도덕성의 상관관계

몽골 대학생의 시민성, 사회성, 도덕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시민성은 사회성 및 도덕성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사회성은 도덕성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표 4. 대상자의 시민성, 사회성, 도덕성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Citizenship, Sociality and Morality (N=200)

Variables	Citizenship	Sociality	Morality
	r (p)	r(p)	r (p)
Citizenship	1		
Sociality	.49 ($<.001$)	1	
Morality	.64 ($<.001$)	.66 ($<.001$)	1

5. 대상자의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독립변수에 대한 상관분석을 한 결과, 상관계수가 0.8 미만으로 나타나 모든 요인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그러나 케이스 진단 시 이상점(Outlier) 1개를 제거한 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을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 상관을 검정한 결과 1.86으로 검정통계량(1.74)보다 크기 때문에 자기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Tolerance(공차한계)가 0.1 이하이거나,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이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몽골 대학생의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예측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과의 차이에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난 종교를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F=5.71, p<.001$). 몽골 대학생의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시민성과($\beta=.39, p<.001$) 사회성($\beta=.45, p<.001$)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모형의 설명력은 57.1%이었다(Table 5).

표 5.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
 Table 5. Factors influencing Morality (N=200)

Variables	B	S.E	β	t(p)	Adj R ²	F
(Constant)	4.67	3.48		1.34 (.181)	.571	87.14 (<.001)
Religion ^a	1.92	.98	.09	1.96 (.051)		
Citizenship	.28	.04	.39	7.16 (<.001)		
Sociality	.38	.05	.45	8.27 (<.001)		

^aDummy analysis

IV. 논의

본 연구는 몽골대학생의 시민성, 사회성, 도덕성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들 변수간의 상관관계와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시민성, 사회성, 도덕성 점수는 중간 점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민성이 중간점수 이상으로 높다는 것은 시민성이 민주적 개념화와 관련되며 언론, 표현, 평등의 자유를 포함하므로[9] 몽골이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 국가로의 정치적 변화로 몽골 대학생들이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고[1] 시민적 의무와 책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몽골 대학생은 사회적 관계 의식을 통한 사회적 적응성과[9] 도덕현상을 인식하고 도덕규범을 준수하려는 성향이[9] 중간점수 이상임을 알 수 있다.

몽골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별 시민성, 사회성, 도덕성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종교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종교는 내면의 확신에 기반한 자발성의 원리에 따르는

만큼[10], 표현과 자유 이념과 맞닿아 있으므로 시민성과 연관되며, 종교가 주는 일체감은 사회 구성원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적응시키므로[11-13] 사회성을 선과 악, 옳고 그름과 같은 규범적 판단의 잣대가 되는 도덕성의 개념과[14] 연관되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이는 몽골의 주 종교인 티벳 불교의 가르침인 보리심과(다른 존재를 이롭게 하기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자 함) 공성 지혜를(무집착) 중시하는 신앙이라는[15-16] 점과 본 연구 대상자인 몽골 대학생의 50.0%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신앙인이란면 종교적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몽골 대학생의 시민성, 사회성, 도덕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시민성은 사회성 및 도덕성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사회성은 도덕성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몽골 대학생과 관련된 연구가 거의 없어 비교하기 어렵지만,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 믿음이나 도덕적 신뢰가 높고, 사회 전반적인 도덕성 수준이 높으면 사회제도나 규범을 잘 수용하며[17] 성숙한 시민사회를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는 주요 동력이므로[18] 시민성, 사회성 및 도덕성의 상관관계는 높을 수 밖에 없다고 사려된다.

몽골 대학생의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시민성과 사회성으로 설명력은 57.1%로 나타났다. 이 결과 또한, 몽골 대학생과 관련된 연구가 거의 없어 비교하기 어렵지만, 도덕적 태도와 행동이 시민적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며[19-20], 도덕적 판단이 사회 내 존재하는 집단 규범의 결과라는 선행연구를[21] 지지하였다.

본 결과는 가족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몽골의 문화 특성[9]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가족간의 상호존중과 책임감은 도덕적인 행동과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이러한 문화적 가치들이 개인의 사회성과 도덕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쳐서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도덕적 행동은 의사결정 과정의 초기단계에 필요할 뿐 아니라 최종 결정과정에도 활용된다. 이러한 능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날 수도 있지만 교육, 모델링, 성찰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22].

대학 교육은 대학생에게 사회적 가치와 이념을 전달하고 시민으로서 책임을 강조하며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도덕적 판단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도덕성이 성숙한 사회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각종 규율과 기준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는[23] 시민성과 안정적인 사회성을 나타내며 이는 도덕성을 유지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몽골 대학생의 시민성, 사회성 및 도덕성을 긍정적으로 잘 유지되도록 사회적, 문화적 환경 유지와 지속적인 개인적 실천행동 표출을 위한 교육기관의 교육과 개인적 성찰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대학생은 대학생활을 통한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타자에 대한 배려와 규칙을 지킴으로써 도덕적 자아 성숙이 이루어질 것이다[24].

V. 결 론

본 연구는 몽골 대학생의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해 시행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 대상자인 몽골 대학생의 시민성, 사회성 및 도덕성은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시민성과 사회성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몽골의 가족과 공동체를 중시하며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는 문화적 특성과 연관되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공동체 의식은 시민성과 사회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사려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몽골 대학생의 도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포함한 체계적인 연구와 중재 개발을 위한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를 통해 검증된 효과는 연구자 편이에 의해 몽골 대학생에 한정되어 추출되었으므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향후 연구 대상자와 다양한 개념으로 도덕성 영향 효과를 지속적으로 재검증해 나가야 할 것이며, 연구 결과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반복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Song BG, “Nomadic Country Mongolia’s changing political system: Asia’s first socialist state to democratic.”, *Asian Regional Review*, Vol. 3, No. 3, pp. 1-3, 2020.
- [2] Dodd LJ, Al-NY, Nevill AM, Forshaw MJ, “Lifestyle risk factors of students: a cluster analytical approach”, *Preventive Medicine*, Vol. 51, No. 1, pp. 73 - 77, 2010. DOI: 10.1016/j.ypmed.2010.04.005
- [3] Assaf I, Brieteh F, Tfaily M, El-Baida M, Kadry S, Balusamy B, “Students’ university healthy lifestyle practice: quantitative analysis”, *Health Information Science and Systems*, Vol. 7, No. 7, pp. 1-12, 2019. DOI: 10.1007/s13755-019-0068-2
- [4] Kim JE, Kim KA, “A needs analysis of digital citizenship educ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in the era of great digital transforma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17, No. 1, pp. 211-226, 2023. DOI:10.46392/kige.2023.17.1.211
- [5] Sainblight D. “A comparative study on 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n-Mongolia language - focusing on the language thinking method”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Vol. 12, pp. 351-384, 2003.
- [6] Yu WS. The tradition and present situation of pastoral nomadism in the Mongolian plateau. *The Journal of Human Studies*. Vol. 67, pp. 349-380. 2012. DOI: 10.17326/jhsnu.67.201206.349
- [7] Mongolian Ulaanbaatar Cultural Promotion Agency. “Culture”, citation by https://nasom16.cafe24.com/mongolcenter/bbs/board.php?bo_table=D03&wr_id=5
- [8] Lee N.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sociality, morality, citizenship and character of university student”,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12, No. 6, pp. 267-286, 2018.
- [9] Seo HD,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volunteer experience and their citizenship, sociality And morality”,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Cheonan, 2011.
- [10] Jo HJ, “The compatibility of citizenship and religiosity and its implications for civic education”, *Theological Perspective*, Vol. 216, pp. 45-78, 2022. DOI: 10.22504/TP.2022.03.216.45
- [11] Wilson DS, Wilson EO, “Rethinking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sociobiology”, *The Quarterly Review of Biology*, VOL. 82, No. 4, pp. 327-348, 2007. DOI: doi.org/10.1086/522809
- [12] Wiebe D, Anthony JP, *The science of religion: a defence: essays by donald wiebe*. Leiden: Boston: Brill. 2018.
- [13] Norenzayan A, Shariff AF, Gervais WM, Willard AK, McNamara RA, Slingerland E, Henrich J, “The cultural evolution of prosocial religion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VOL. 39, No. e1,

pp. 1–65, 2016. DOI: :10.1017/S0140525X14001356,e0

- [14] Oh HK, “A study on between perception about working environment of childcare teachers’ and the happiness : focusing on employer supported child care center teachers”,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Ulsan, 2017.
- [15] Demberel, “A study on the change and development of mongolian religion and society oriented with influences of esoteric buddhism in tibetan buddhism to mongolian buddhism”, *Studies of Seon Culture*, Vol. 27, pp. 207–236, 2019.
- [16] Rustam S, “Religion and modern society in mongolia”, *EMERiCs Russia and Eurasia*, Vol. 9, pp. 1, 2016.
- [17] Lee HC, “An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on civic morality:focused on Korea, China and Japan”, *Public policy Review*, Vol. 31, No. 2, pp. 27–56, 2017.
- [18] Listhaug O, Ringdal K, “Civic morality in stable, new, and half-hearted democracies. in art, w. and halman, l.(eds.): *European values at the turn of the millennium*”, *European Values Series 7*, Leiden, The Netherlands: Brill, pp. 341–362, 2004.
- [19] Hibbing JR, Alford JR, “Accepting authoritative decisions: humans as wary cooperator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8, No. 1, pp. 62–76, 2004. DOI: 10.2307/1519897
- [20] Sieben I, Halman L, “Morality and the public good in post-socialist european states”, *Studies of Transition States and Societies*, VOL. 7, No. 1 pp. 7–26, 2015.
- [21] Haidt J, “The emotional dog and its rational tail: a social intuitionist approach to moral judgment”, *Psychological Review*, VOL. 108, No. 4, pp. 814–834, 2001.
- [22] Kwon BG. “A critical review of the current medical ethics education in Korea”,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Education*, VOL. 9, No. 1, pp. 60–72, 2006.
- [23] Letki N, “Investigating the roots of civic morality: trust, social capital, and institutional performance”, *Political Behavior*, VOL. 28, No. 4, pp. 305–325, 2006.
- [24] Kim JM, Hong SK. “The relationships between moral self-concept, ethical sensitivity, and empathy i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Education*, VOL. 20, No. 3, pp. 317–329, 2017. DOI: /10.35301/ksme.2017.20.3.317